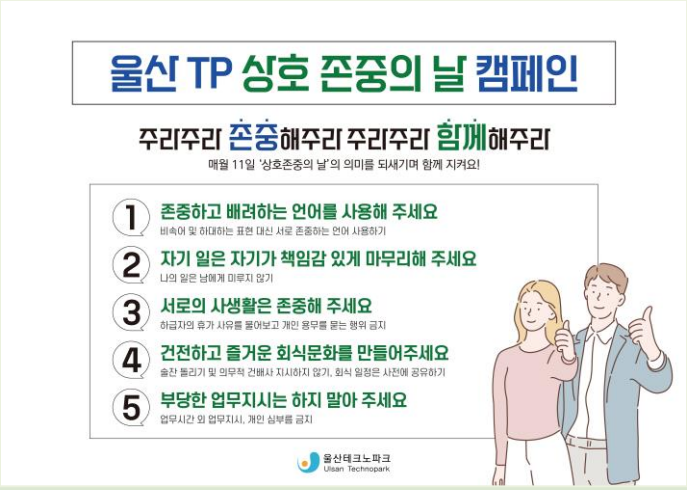
2025년 8월

# 인권 경영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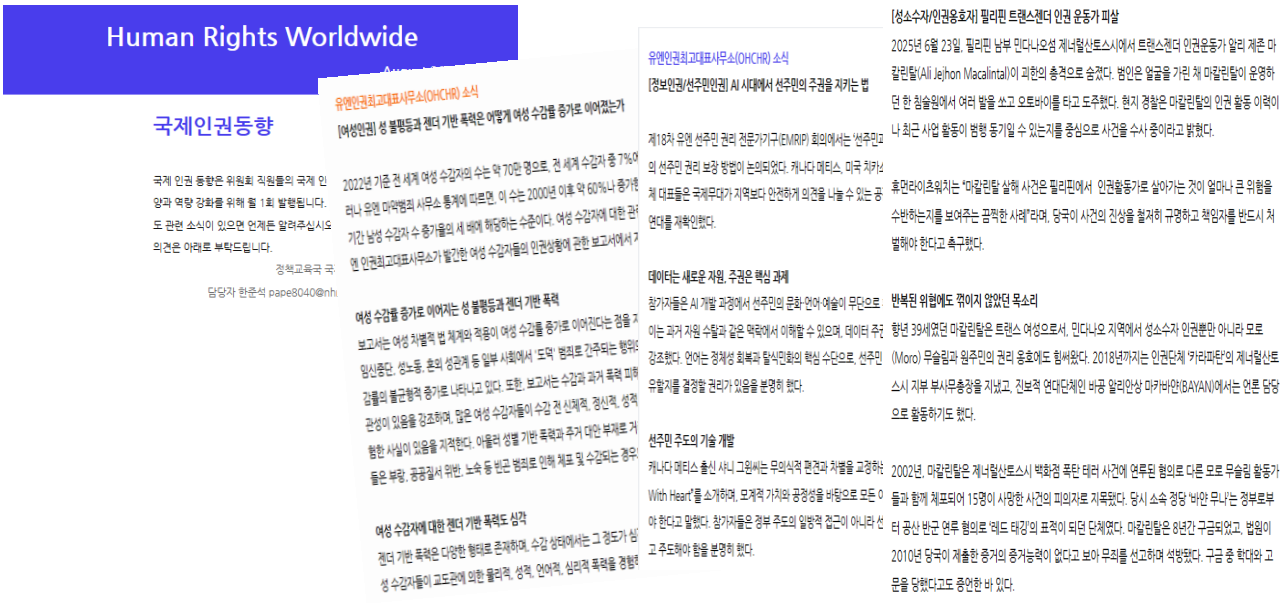
울산테크노파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01.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




매달 11일 “모두가 존중받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하는 행복한 울산 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 02.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인권동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여성인권] 성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은 어떻게 여성 수감률 증가로 이어졌는가

2022년 기준 전 세계 여성 수감자의 수는 약 70만 명으로, 전 세계 수감자 중 7%

여성 수감률 증가로 이어지는 성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

여성 수감자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도 심각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정보인권/선주민인권] AI 시대에서 선주민의 주권을 지키는 법

제18차 유엔 선주민 권리 전문가기구(EMRIP) 회의에서는 '선주민과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 주권은 핵심 과제

선주민 주도의 기술 개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성소수자/인권옹호자] 필리핀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가 피살

2025년 6월 23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제너럴산토스시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 알리 제존 마칼린탈(Ali Jejhon Macalintal)이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범인은 얼굴을 가린 채 마칼린탈이 운영하던 한 침술원에서 여러 발을 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마칼린탈의 인권 활동 이력이나 최근 사업 활동이 범행 동기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마칼린탈 살해 사건은 필리핀에서 인권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며,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된 위협에도 꺾이지 않았던 목소리

향년 39세였던 마칼린탈은 트랜스 여성으로서, 민다나오 지역에서 성소수자 인권뿐만 아니라 모로(Moro) 무슬림과 원주민의 권리 옹호에도 힘써왔다. 2018년까지는 인권단체 '카라파탄'의 제너럴산토스시 지부 부사무총장을 지냈고, 진보적 연대단체인 바공 알리안상 마카바얀(BAYAN)에서는 언론 담당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년, 마칼린탈은 제너럴산토스시 백화점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다른 모로 무슬림 활동가들과 함께 체포되어 15명이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소속 정당 '바얀 무나'는 경부로부터 공산 반군 연루 혐의로 '레드 태깅'의 표적이 되던 단체였다. 마칼린탈은 8년간 구금되었고, 법원이 2010년 당국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됐다. 구금 중 학대와 고문을 당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2025 8월호